

월간

# 농

# 현

# 7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 협 교 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7월 30일 창간  
1975년 7월 13일 발행  
통권 제19호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농어촌교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와 함께 교단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는 하나이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는 다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이 없다면.....

□ 특집 : 농어촌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 □

## 집을 함께 지는 사랑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지도자 초청훈련에 붙여—

그동안 도시교회들이 농어촌으로 보낸 계몽 및 전도대들의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본래 의도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교회의 격차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회들이 개교회주의라는 이기적 동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일을 해오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교회는 김 창인 목사님의 용단으로 출현에 가까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 농어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훈련하여 왔다. 그 이유는 자질면에서 뒤지는 농어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서울에서 단기간 훈련시켜 보냄으로써 농어촌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교역자들과 주일학교 지도자들을 함께 훈련시키는 데서 오는 핸디캡(handicap)을 없애고자 금년부터 이들을 따로따로 훈련시키기로 한 것은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교회에서는 골전의 재정적 부담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그 효과면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처사라고 하겠다.

총회 신학대학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교회에는 대학을 졸업한 교역자들의 수가 14.3%에 불과하여 심지어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한 교역자들이 26.7%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더

우기 경제적 격차와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농어촌 교회에서 평생 시무를 원하는 교역자들의 수는 불과 25.6%라는 통계를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다. 나머지는 속히 옮기기를 원하거나(17.1%) 아니면 장차 옮기기를 원하고 있다(58.4%) 하니 더욱 놀란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도시교회가 보다 많이 경제적 부담을 질 뿐 아니라 교역자 및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금 현재 총현 교회가 가지는 이 행사를 교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실 농어촌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교역자들의 자질문제에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는 데 있다.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들 가운데 3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는 수가 25.3%나 되며 평균 4-6명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것만도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49명이 초청되어 훈련을 받은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의 수고와 100여명의 평신도들의 수고가 이번 훈련을 위한 우리교회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더 적극적 자세에서 농어촌 교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교단적 캠페인(campaign)이 있어야 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는 다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집을 함께 지는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

<주간>



### 차 례

|                              |    |
|------------------------------|----|
| <선교> 합당한 봉사/홍종만 목사           | 3  |
| <기관소개 ⑨> 새신자부·유치부            | 4  |
| <해외선교> 5월 보고서                | 5  |
| <b>특집</b> ◇농어촌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 | 6  |
| <올해의 여름행사> 여름행사의 향방          | 10 |
| <성령론 ②> 성령받은 증거/정상우 목사       | 12 |
| <평가> 제 1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 13 |
| <칼럼> 하나님의 뜻은?/이형수            | 13 |
| <교회 뉴우스>                     | 14 |

### 7월의 행사

- 6/제직회 월례회
- 10-14/제 4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초청 훈련
- 13/남전도회 월례회
- 13/권사회 월례회
- 15-20/대학부 하기수양회
- 16-18/청년부 하기수양회
- 20/교육위원회 월례회
- 27/구역권찰회 월례회
- 27/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 27/주일학교 교사월례회
- 28-31/여름어린이성경학교
- 29/정기 당회
- 29/고등부 하기수양회
- ◇ 김창인 목사 발음설교/기독교방송 매주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합 당 한 봉 사

홍 중 만 목사

(부목사·신교사후보)

## 이달의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분량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얻은 것으로 알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취급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임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말은 자로서의 입장에서 바르게 취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청지기적 입장임을 맡하여 주십니다 (마 25: 14-30).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취급하는 원리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중"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중"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이하여 우리교회에서 하기전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봉사활동이 시작되는데 봉사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자기 간증에서 우리는 신앙인이 지닐 봉사자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의 직책을 말합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봉사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세상의 증노릇하다가 괴담으로 영육이 아울러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마음 깊이 느껴 감격할 때 순수하고 깨끗한 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그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었던 은혜까지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를 주신 것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의 형편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셋째 그는 수고의 공로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많은 공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빌 3:3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 자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응답하여 봉사하는 것뿐이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정신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마땅히 중성되게 봉사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게으르거나 핑계할 수 없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하여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고만한 마음이나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우들은 이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봉사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새로 낳은 신자들 육성

만일 농부가 씨만 뿌리어 놓고 물도 안주고 김도 매어 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농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어머니가 애기를 낳아 놓고 젖도 먹이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불신자에게 전도만 하고 교회가 이 새 신자를 육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씨를 뿌려도 어린애를 낳아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새신자부는 새로 낳은 신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새 신자 육성기관입니다(고전 3:6). 현재 우리 증현교회 주일학교 새신자부는 행정상으로 하나이지만 성격적으로 내용은 둘입니다. 유·초등학생(국민학교 1~6학년 해당)의 대상자와 장년새신자 활동입니다. 부장은 박창수 장로님이시고, 지도교역자는 어린이는 정기성 목사님, 장년은 홍종만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새신자부는 교사 23명 학생 주평균 80명 모입니다. 여기서서는 처음 믿는 어린이를 받아 5주 동안 기독교의 기본진리와 생활을 교육하여 6주만에 출석 성직에 따라 유·초등부로 등반시킵니다.

새신자부 교사는 다른 부 교사와 달리 환경이 생소하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모르는 어린이를 상대하기 때문에 남달리 신경을 써 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오는 어린이는 그날 심방하여 신앙을 파악하고 맘에 들게 하지 않으면 한 주 나오고 안나와 버리기 때문에 늘 가슴조여 일합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등반시키면 내가 애기를 낳은 것 같은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장년 새신자부는 현재 6개월 과정으로(전 26과) 매 주일 12시 새신자부실에서(별관 지하실) 홍종만 목사님을 강사로 구원의 기본교리와 기독교인의 기본생활을 체계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평균 35명 가량 모이고 7조로 반이 조직되어 각 조마다 담당교사님들을 모시고 교회생활에 대하여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년 새신자부 전과정을 마치는 분들에게는 학습교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당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기성 목사, 새신자부 지도>



## 올바로 키우자

우리 유치부가 1953년 11월 1일에 주일학교·개교시 유년부 명의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969년도에는 유치부가 완전 독립되어 운영중 1975년도부터는 영아부가 분리·독립하는 등 21년 8개월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발전에 따른 기구변경이 있었고 현재에는 만 5·6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250명을 교사 26명이 우리교회의 목표인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All things with Jesus Christ)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바로 키우자”(Bring up Rightly)를 유치부의 표어로 삼고 어린이들을 천국일꾼으로 키우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교사들의 포부인 ERA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첫째 선행의 본이 되자(딤후 2:7, Give Examples of good works)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유치부 교사들의 책임이 중함을 느끼게 된다.

둘째 충성을 다하자(고전 4:2, Perform your Responsibility)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15,17)」고 하신 말씀에 따라 좋은 양식을 먹이도록 부지런하며 우리들의 제주나 지식이나 수단에 의하지 않고 충성하겠다.

세째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력으로 활동화하자(갈 5:25, Activity)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찌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의뢰하여 가르쳐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공산주의자들의 도발(挑發)을 분쇄하고 적 그리스도인 사교(邪敎)와 이단(異端)을 박멸하는 일이라 하겠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

장차 어린이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큰 은혜받아 신앙의 열매를 지키며 교회봉사에 충성된 큰 일꾼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 개인이 복받고 민족을 살리는 올바르고도 철저한 「참 크리스찬」을 양육시켜야 하겠다. <조현명 장로, 유치부 부장>



## 5월 보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위에 퍼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원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5월중 사업결과를 보고하나이다.

1975년 5월 31일 할렐루야/자카르타  
선교사 서 만 수

## □ 김창인 목사 현지시찰

총회의 선교부장 김창인 목사(총현교회 당회장)는 지난 5월 27일 선교지 시찰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 한국 대사관으로 이재실 대사를 예방하고 한국 선교부의 장래와 선교회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인도네시아 보수주의 운동의 대표인 디·프레릭스 목사를 방문하여 이번 초청에 감사하고 1976년에 한국교회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6월 4일 방콕으로 떠났다.

## □ 선교회관 건축설계 완성

오랫동안 우리의 소망이었던 선교회관 건축이 지난 5월 건축설계도가 완성됨으로 한층 활기를 띄우게 되었다. 이 설계도는 현지에 취업중인 경남기업의 황규태 소장의 배려로 안정길 기사가 수고를 하였다.

## 긴 급!

열정과 헌신의 성도들로 세계교회에 널리 알려진 소문과는 달리 이제까지 우리는 해외선교에 너무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2,200여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국 선교사는 부인까지 50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인식함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해외복음선교회관 건축」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엄중한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최초로 「한국 해외선교회관」 건축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의 해외선교의 시작처럼 이 일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의 정성이 응고되어 밑거름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선교회관 건축비 5만 8천달러 가운데 당장 2만 9천달러가 필요한데 이도 상당액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해외 복음 선교회>

## △ 총동원!

## △ 동원전도운동!

## △ 동원전도운동에 모두 참여합시다!

복음전파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난국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매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증거자가 됩시다.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많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두가지를 실천합시다.

## 1.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시다.

항상 몸이 전도지를 지니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나, 길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 2. 우리는 모두 안드레가 됩시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안드레와 같이 나도 다음과 같이 안드레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 불신자중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정하여 안드레 카아드에 그의 이름을 적읍시다(1~4사람).
- 안드레 카아드 속에 끼워 있는 전도 대상자 카아드에도 똑같이 기록하여 그것을 전도부에 제출합니다.
- 내가 정한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매일 한번씩 기도합니다. 또한 때때로 찾아가 결신할 것을 권합니다.
- 안드레가 된 교우 3~5사람과 같이 한 조를 짝니다. 그리고 한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각각 결정된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 전도대상자를 찾아가 결신할 것을 권할 때에도 조원이 함께 협력하여 전도합니다.

이상 두가지를 실천하여 결신자가 생기면 결신자 카아드에 상세히 적어서 교회 전도부에 보고합니다. 이 전도운동은 각 구역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며 구역장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7월 13일

총현교회 전도부

※ 「전도지」와 「안드레 카아드」는 선교회 사무실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

## <자 레>

1. 농어촌교회의 고민
2. 농어촌교회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는가?
3.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4. 총현교회는 농어촌교회와 어떻게 협력하여 왔는가?
5. 앞으로 총현교회는 농어촌교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6. 맺음말

## 1. 농어촌교회의 고민

소외자라는 인식속에 도시교회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의욕상실중에 빠져들고 있는 농어촌교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으로 망들려 있다.

90여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래 농어촌교회가 오늘날처럼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 보인적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복음운동이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같은 현실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초기 관(官)의 압박이 극심하였을 때나 일본의 간악한 압제하에서나 우리나라 농어촌교회는 민족지도자와 애국선열들의 활동 근거지였었다. 그러나 8·15해방과 함께 상황은 급속히 변했다. 유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였다. 더우기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은 도시인구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시켜 농촌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1967년 이래 지난 8년 동안 262만명의 농어민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함으로써 농어촌교회의 인력자원 기근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도시교회는 폭발적인 교인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력자원의 편중으로 농어촌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일꾼도 도시교회에서는 뚜렷이 하는 일도 없이 고작 도시교회의 출석통계를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교회의 이같은 인적 자원의 부족과 평신도 지도자의 부족이라는 고민 외에도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이 토로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신이 목회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체념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치는 강단의 말씀이 어찌 능력이 있겠는가. 무능력한 외침에 교회는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여기에 재정적인 빈곤까지 따른다. 이러한 시련의 유일한 탈출구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도시교회로의 이동을 생각한다. 그리고 능력있는 목회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진출(?)한다. 그리하여 농어촌교회는 인력자원의 빈곤에 지도자 부재(不在)라는 고민을 한가지 더 더할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2. 농어촌교회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전에 참고로 농어촌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고통을 몇가지 더 들어보자.

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교역자는 무려 72.5%에 이르고 있다. 즉 10명중 3명 정도만이 농어촌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 뿐 7명정도는 기회만 오면 언제고 농어촌교회를 떠날 사람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지역적·경제적 여건으로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어려움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외부(특히 도시교회)와의 단절로 교역자 자신이 영적·지적 성장의 정지로 현실조차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교역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외에 말하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과 훈련 결여
-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주일학교 교육의 부재
- 전도는 교역자나 하는 일이며, 평신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 교리적인 지식 부족으로 오는 교인들의 모호한 신앙 체계
- 도시생활의 동경에서 오는 젊은이들의 열등의식과 가출
- 경제적 안정자의 이농으로 인한 농어촌교회 재정의 빈약
- 무지에서 오는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심한 의견대립
- 농가의 소득증대로 인한 배금사상의 고조와 신앙생활 소홀
- 토속신앙으로 인한 교회활동에 대한 집단적인 거부 행동
- 세속집단 부락에서의 교회활동에 대한 집단적인 거부 행동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가 저너야 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데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어촌교회가 이러한 지도자의 육성을 담당할 능력은 없다. 여기에는 도시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1967년 이래 8 년동안 262만명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는 청년.....□
- .....의 꿈을 품고 떠난 젊은이도 있었다. 이웃의 수준이 낮음을 탓하고 떠난 지식인도 있.....□
- .....였다.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떠난 부자도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무지에 쫓겨.....□
-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떠나버린 성도도 있었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촌교회는 외롭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나도 30.....□
- .....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모양, 부흥의 불길이 불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농어촌교회.....□
- .....—거기에도 우리들의 희생과 땀이 요구되는 곳이다. 지난 6 월 16일부터 20일까지.....□
- .....열렸던 「제 1 회 농어촌교회 교역자초청훈련」에 참가하였던 49명의 농어촌교회 교역자.....□
- .....들의 설문답안을 내용으로 농어촌교회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

### 3.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농어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시교회의 협력은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시교회는 마땅히 농어촌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농어촌교회는 어떠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가? 최근 수년간의 도시교회에 대한 농어촌교회의 협력 요청내용은 그 성질면에서 과거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농어촌교회는 거의 모두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원하였었다. 도시교회 또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유일한 협력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얼마가량의 재정지원만으로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자위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이러한 협력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된다는 것을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농어촌교회 스스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증거로 모든 목회자들이 농어촌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목회자 자신이 능력있는 종으로 변화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전교회적인 부흥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절적 향상을 위해 특별훈련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울러 도시를 포함한 각종 목회자료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평신도를 위하여는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강사를 파송해 줄 것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훈련·교육을 도시교회가 담당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교회가 이처럼 소비성이 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요청을 지양하고 재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요청내용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실제적인 면이 발전된 것이다.

### 4. 증현교회는 농어촌교회와 어떻게 협력하여 있는가?

1953년 증현교회가 설립된 이래 1971년까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농어촌교회와 획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진 일은 없었다. 단지 재정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정도이었다. 이러한 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은 소위 여름 어린이성경학교를 위한 「하기봉사대」의 파송이었다. 이것은 도시교회가 최초의 능동적인 협력의 행동표시였다는 데 보다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매해마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무계획하게 선택하여 칠새처럼 다녀온 후 무책임한 사후처리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시교회가 아직도 이와같은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농어촌의 소리 ①

### 도시교회가 관심을

가물에 시들던 풀이 소낙비를 맞본 듯이 이번 훈련이 침체되어 무기력하기 그지없던 심령들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됨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회에 비교한다면 농어촌교회는 쇠퇴일로에 있으나 도시교회는 비대해진 그 자체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교회는 도시로 이주하는 교인들 때문에 텅텅 비어 있으나 도시교회는 차고 넘치니 염치 없는 요구일는지 모르나 전국 도시교회가 쓰러져 가는 농어촌교회에 대해 증현교회와 같은 관심만 가져 준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특히 개별적인 것보다 전국 도시교회가 힘을 합하여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또 교역자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도시교회가 이번 훈련과 같은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평신도들을 위하여는 일년에 한번이라도 도시교회와 협조하여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한 믿음의 결과인 줄 알면서도 수많은 농어촌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해 한번 문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와 온 교인이 합심하여 이루어진 오늘의 눈부신 증현교회에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을 빕니다.

<대구 월산교회/이 상 열

장도사>

## □ 특집 : 농어촌교회

기록에 의하면, 충현교회와 농어촌교회가 뚜렷한 협력관계를 맺은 것은 1959년 중·고등 학생들이 충북 세산교회를 개척한 일과 여전도회가 충남 부여제일교회를 개척한 일일 것이다. 이어서 1960년 「청년회 계몽대」라는 이름으로 충남 세산교회에 하기전도대 파송, 1961년 강원도 사곡감리교회와 충북 세산교회에 중·고·대 학생전도대 파송, 1962년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 15명이 전국 4개처 교회로 파송되었다. 이후 1971년까지 해마다 이 하기봉사대의 인원수와 파송대상 교회수를 늘려왔다. 그러던 중 1972년 충현교회는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두가지 사업에 착수하였다.

첫째는 농어촌교회 여름 어린이성경학교 개교가 주목적이었던 「농어촌봉사대」를 「농어촌전도대」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여름 어린이성경학교는 단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현지 교회의 전반적인 부흥에 주 목적을 두고 교회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농어촌 전도요원훈련」이라는 전문적인 전도훈련을 파송자 전원이 받고 전도용 장비와 전도지 등을 대폭 보강한 일이다.

둘째는 무엇보다 시급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농어촌교회 교역자·제직·주교교사·등을 초청하여 「농어촌교회 지도자초청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일이다.

올해로 4회째 맞는 이 훈련을 한층 더 발전시켜 1975년부터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 「교역자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미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제1회 농어촌교회 교역자초청훈련」은 예상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든 훈련에 있어 숙식·여비·교재 등에 이르기까지 비용 일체를 충현교회가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몇해 사이에 충현교회가 특별히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매우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현재의 활동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 ◇ 농어촌의 소리 ②

## 영혼 좀먹는 배금사상

우리교회는 역사가 70년이나 되지만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드뭅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온 교인들이 잠살기운동(돈벌이)에 전념하고 신앙생활은 부업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물질문제로 시달리다 보니 자주 사명감이 흐려져 심령의 재무장과 아울러 신앙을 위한 지적향상이 몹시 갈망됩니다. 여기에 인물빈곤까지 겹쳐 농어촌교회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충현교회의 농어촌교회 교역자·지도자 초청훈련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무지를 깨우쳐 주는 좋은 계기입니다. 농번기에는 교역자, 농한기에는 제직들을 훈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농어촌교회가 오직 성령님의 뜻을 따르면 물질문제까지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충남 금당교회/박 종 선 목사>

## 5. 앞으로 충현교회는 농어촌교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몇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다.

첫째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 바른 인식문제이다. 지역적인 특수성에서 볼 때 농어촌교회가 도시교회와 모든 면에서 같아야 한다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지녀야 할 능력은 동일하겠지만 각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여야 할 일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는 각각에게 맡겨진 책임에 있어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 농어촌교회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농어촌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해 올 경우 도시교회는 대개 문제해결에 있어 도시교회 형편에 적합하도록 일방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 결과 실제적인 성과에 있어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와는 많은 견해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훈련·교육 등의 과정에 있어 강사와 강의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셋째 모든 활동은 농어촌교회의 자립을 전제로 한 재 생산적인 투자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시교회의 일방적이고도 일관성 없는 활동은 도리어 농어촌교회의 자립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전통제와 같은 단편적인 협력을 주사해 놓고 제면을 세우려는 편도 문제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것에 의존하여 작성할 줄 모르는 수용자의 태도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농어촌교회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데 모든 투자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충현교회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 ◇ 농어촌의 소리 ③

## 이제는 외롭지 않아

이번 교역자 초청훈련을 통해 충현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는 한, 농어촌교회도 결코 외롭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나니 목회의 보람과 자신을 다시 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농어촌교회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자립방법으로 유실수를 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기도과 말씀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의태심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교인들의 신앙성장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칠전팔기의 인내로 적은 일부터 키워나간다면 이것이 곧 불신자에 대한 행위의 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충북 대광교회/이 규 만 목사>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총현교회에 농어촌부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한다.

- ①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실시한다 (연 2회).
- ② 농어촌교회 교사·제직 초청훈련을 실시한다 (연 2회).
- ③ 농어촌교회를 위한 선교사를 육성하여 파송한다.
- ④ 상설 농어촌교회 전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특히 농어촌교회의 부흥회와 하기 및 동기 전도대 파송에 주력한다.
- ⑤ 농어촌교회의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도서구매조합을 운영하고 도서와 목회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⑥ 농어촌교회문제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⑦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를 위한 장학회를 운영한다.
- ⑧ 수시로 농어촌교회의 형편을 조사하도록 하며 지도방법을 연구하게 한다.
- ⑨ 농어촌교회 여성도들에 대한 생활개선 지도를 한다.
- ⑩ 농어촌교회 교역자 사모님 위로회를 연다(연 1회).

(2) 농어촌교회로 하여금 지역단위로 농어촌교회 부흥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한다.

- ① 농어촌교회 상호간의 친교와 정보 교환에 힘쓴다.
- ② 동일지역내의 농어촌교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 ③ 농어촌교회의 문제들을 파악하여 도시교회와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한다.
- ④ 지역사회와 농어촌의 생활개선에 힘쓴다.
- ⑤ 앞으로 지역별 농어촌교회 지도자 육성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3) 농어촌교회 부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도시교회 공동기구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한다.

- ① 농어촌교회 교역자·제직·교사 등을 전문적으로 훈련한 훈련원을 설립한다.
- ②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한다.
- ③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를 운영한다.
- ④ 농어촌교회 목회자를 위하여 각 지역의 중심교회에 도서실을 마련하여 이용하게 한다.
- ⑤ 농어촌교회를 위한 도서출판 및 각종 자료 제공에 힘쓴다.

## 6. 맺음말

농어촌교회는 부흥되어야 한다.

농어촌교회의 부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농어촌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며 농어촌의 모든 부조리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어촌교회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농어촌교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도시와 농어촌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순수한 복음운동을 전개하는 길이다.

농어촌교회가 복음운동을 전개함에는 도시교회의 인적·물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농어촌교회에 대한 도시교회의 협력은 너무도 도시교회 일변도의 무계획한 협력이었다. 앞으로는 농어촌교회의 빠른 자립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교 밑은 자기 있을 수 없다. 능력있는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를 위해 마땅히 협력할 책임이 있다면 농어촌교회는 하루속히 자립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은 표 간사〉

## ◇ 농어촌의 소리 ④

### 의료봉사로 전도

불교사상과 구습에 젖어 전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농어촌교회 부흥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나오는 사람도 헌금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도와주는 곳으로 인식하는 정도입니다.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를 돕고, 전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봉사를 들고 싶습니다. 한 주일씩 무료 의료봉사를 하되, 전할하기 전에 먼저 전도예배를 드리고 치료를 해 주면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몇번 하다가 동네 회관 같은 데서 하면 인근교회 교역자가 협력하여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설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그 전에도 실행해 보았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현교회는 꼭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충남 웅천중앙교회/최진모 목사>

## ◇ 농어촌의 소리 ⑤

### 잡은 인사이드 문제

이번 훈련을 통하여 청지기 직분의 사명감을 철저하게 깨닫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현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어촌교회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경우 씨족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또한 교회의 너무 잡은 인사이드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근본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장학금제도와 같은 것을 도시의 큰 교회서 마련한다면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되고 큰 힘을 북돋아 주겠지요. 부족하고 약한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낙원교회/정성수 목사〉

# 여름행사의 향방

○... 여름이 왔다. 모든 것이 뜨거운 태양 아래 힘을 잃고 있지만 우린 이 계절에 가장 활기를 갖고 가장 많...○  
○...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  
○... 20여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교회의 여름행사는 (아니 모든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가지...○  
○...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빈틈 없는 계획과 조직, 열심있는 봉사로 은혜스럽고 효과있게 진행시키지만...○  
○...그 후에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더러는 평가도 있었지만 후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큼 보존되지 못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에 와서 많이 발전되어 「평가회」란 말을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평가회는 평가회로 끝나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평가회를 거친 문제들이...○  
○...차기의 계획이나 진행에 반영되어 확대·재생산적인 발전을 가져와야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지...○  
○...난 해의 평가서를 다시 한번 펼쳐 보면서 올해의 계획을 점검하여야 될 것이다. <편집실(형)>...○

## □ 영아부

처음 갖는 여름어린이성경학교이다. 8월 1일 하루를 잡아 오전 9~12시까지 3시간을 계획하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자」라는 주제 아래 모인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선생님들의 자세와 열심 여하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강사는 정소영 전도사가 담당한다.

## □ 새신자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모인다. 저녁철교 강사에 우리 교회의 김종택 목사님이 담당하신다. 총제목은 「성경과 저작자」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바로 알자」라는 표어아래 모인다.

지난 해의 성과는 주제(성경과 예배)에 대한 결과기간중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성경과 예배」에 대해 배움으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훨씬 좋아졌던 것이다. 또 1일 평균출석인원의 최고(1659명)를 기록했으며 행정·조직면에서 훌륭하게 뒷받침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합리적인 교실배치, 절대 부족한 교육보조 재료(영사기, 스크린, 패드걸이, 성경지도, 칠판 등)의 준비 등은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진행에 있어서 6일 예정의 교재를 4일로 축소 요약한데 대한 선생님들의 충분한 준비 부족, 특활의 준비 및 경험 부족으로 오는 시행 착오, 특강에 대한 배려, 축제지의 적절한 분량 조절, 또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교사수의 절대 부족, 특히나 금년에도 대학생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교사수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입시로 충원된 교사들에게 사전의 훈련 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면서 계획하고 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부연하고픈 것은 노회 주회의 여름어린이 성경학교의 교사강습회가 우리 교사들에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주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 우리교회 자체에서 따로 교사강습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다. 이는 강습회에 짜여진 시간들은 우리교회의 교사들(대부분의 담임교사)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간

들이며 또 그 기간만 참석하는 교사들에게 대한 훈련도 생각해 볼 때 우리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강습회를 통하여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한다면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것은 어느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 중등부

지난 해에는 3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대학교에서 3박 4일간에 일정으로 모였었다. 「말씀의 권세를 얻자」라는 주제하에 모였던 작년의 수양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스러웠다」라는 평이었다.

중등부는 이제부터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자개인에게 기도의 훈련, 말씀보는 훈련, 선도의 훈련 등을 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김진택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8월 4일부터 7일까지 교회에서 모인다.

특별계획으로 이 기간중 전체 운동회를 열어 상호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총예산은 407,000원이다.

## □ 고등부

「의심의 마음을 깨워라」라는 주제 아래 작년에 이어 부궁화촌에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모인다. 세광교회의 김윤배 목사를 강사로 모셨다.

수양회는 집중적인 신앙훈련에 기회이다. 따라서 지난 해의 새벽기도 후 각자 성경읽기시간을 가진 점이나 통성기도 등을 통한 자신의 발전 등은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에 약간 비좁은 듯한 곳으로 지적된 곳을 올해도 또 선정할 것은 시내에서 가까와 방학중에도 계속 수업중인 고 3학생을 위한 것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태문이라 생각된다. 금년의 대상인원은 200여명이다.

## □ 대학부

토론시간의 절대 부족, 너무나 여유없이 짜여진 일정,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지도진과 임원간의 충분한

대화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지난 해의 대학부 수양회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라는 주제로 7월 15~20일, 총회 신학대학에서 열렸다.

올해는 지난 해에 이어 신성중 강도사를 강사로 서해의 천리포에서 계획하고 있다.

514,500원의 예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일 4:7)」란 주제를 내걸고 있으며 기간중 수요일에는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 청년부

「어찌해 볼 수 없는 기간의 짜여짐(7/16~18)」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작성에 고심하여 주제 「우리의 몸을 의의의 병기로」의 부각에 크게 신경을 쓰며 계획해야 할 것이다.

용두중앙교회의 윤성원 목사를 강사로 모셨고 불광동의 기독교수양

관에서 모인다.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매년 이 기간을 통하여 청년부 발전의 큰 기회가 되어 왔던 청년부 수양회에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점은 수양회를 계기로 밀어닥칠 새 신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 □ 성경학원

이미 끝난 「제1회 농어촌 교회 교역자초청훈련」과 4번째로 맞는 「농어촌교회 정신도 지도자훈련」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작년에 실시된 제3회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농어촌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제시 필요 ② 훈련기간을 7월 중순에 실시하여 각자 교회의 하기행사에 활용토록 ③ 훈련대상을 각 지역단위로 ④ 농어촌 교회 부흥과 건밀한 유대를 위해 부흥회(사경회) 강사 지원 파견토록 ⑤ 농어촌 지도자훈련과 전도대 파송활동을 위한 상설기구 필요.

금년의 특징은 참가교회선정을 지난 6월에 가졌던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에 참가하였던 50개 교회에서 각 2명씩 훈련시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왕복교통비와 숙식비를 포함한 총 예산은 428,000원이다.

## ○ 어린이마음 ○

### 보람된 어린이수양회

6학년 성기주

지난 여름, 어린이 수양의 때였다. 들꽃날 모닥불에 배 시간이 되었다. 어쩐지 까불던 마음은 없어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쫓대를 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둘러싸고 쫓대에 불을 켜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지은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였다. 꼼꼼히 생각하니, 너무도 죄가 많아서 눈물이 나올정기였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시험지에 다 썼다.



◇ 여름 학교 중 특별 활동시간의 어린이들

## □ 전도부

각 지방교회에 부흥의, 전도의 불길을 일으켜 준 것으로 크게 평가되었던 농어촌 전도대 파송은 반면에 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놓았다.

① 파송지역 및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며 ② 사이비 종파에 대한 분석, 비판 능력이 필요하고 ③ 전도 장비의 현대화(촬영기, 영사기 등)가 긴급하고 ④ 전도대원을 골고루 구성해야 하고 ⑤ 추가로 파송하는 등의 혼잡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는 8월 11일~17일까지 충남, 광주 시진 충북, 제천, 청원 일대에 9개팀을 파송할 계획이다. 1개팀에 6명으로 각팀은 각부 주일학교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 제일성가대

제일성가대 수련회가 처음으로 우리교회에서 8월 15일~16일에 모인다. 정상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리는데 앞으로도 매년 가질 예정이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테어요.”

하고 기도를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나무로 만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불과 함께 태워버렸다. 나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니 마음이 너무 기뻐졌다.

신앙 간증 시간 전에 모닥불에 둘러앉아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이제부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겠다... 신앙 간증시간에 모두들 예수님의 고마움을 이야기한 다음 은혜로운 모닥불 예배를 끝마쳤다.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보람된 어린이수양회였다.

# 성령 받은 증거

<사도행전 19장 1절-7절>

정 상 우 목사

<부목사, 청년부지도>

## <연재순서>

1. 성령의 올바른 인식
2. 성령 받은 증거
3. 성령의 충만

믿을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말과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 12:3; 롬 8:9).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하는 구별은 내가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든지 또는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즉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롬 8:9).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요한일서 1:20에 보면 "너희가 기록하신 자에게서 기쁨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전리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다음 3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

I.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것을 알게된다(요한 16:8-11)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엡 4:18-19). 어두움 속에서는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없고 밝은 빛 가운데서만이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을때 먼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성령의 밝은 빛을 받은 후부터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로다"고 말했던 것이다(딤후 1:15).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이며 신앙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내가 죄인된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의 심령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 보지 못한 자는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딤후 1:15)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인 것이다.

II.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바로 알게 된다

(고전 12: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둘째 증거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고백이다. "예수는 주시라" 이는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의 요약이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알지 못함을 말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고후 5:16).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명, 바로 예수님께 대한 증거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요 16:13-15).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이다(롬 8:9). 아무리 세상 지식에 무식한 자라도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믿게 되는 것이다.

III.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되심을 알게 된다

(갈 4:6 롬 8:14-15)

이는 첫째와 둘째 증거의 결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부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이(엡 2:3,13) 기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아들의 영"(갈 4:6) "양자의 영"(롬 8:15)이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써 권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생활인 것이다(요 1:12; 11:52; 갈 3:26). 그러기에 하나님을 서슴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신자인 것이다.

이상 3가지 사실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신자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성령을 받았느냐"의 질문에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과 "성령의 세례"란 말과 "성령의 충만"이란 말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주저하는 성도들이 많다. 물론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령의 세례(충만)를 지시하는 뜻으로 성경에 나타난 곳이 여러 곳 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을 "증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의 세례나 충만"을 추가적인 성령의 은사로 구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은 3가지 기본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내가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신 성령(성령의 내주)은 결코 다시 떠나는 법이 없는 것이다(요 14:16).

## 《제1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임지조진이 불우한 농어촌교회의 교역자들의 자질 향상과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제1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이 1975년 6월 16일~20일에 걸쳐 있었다.

이 훈련은 교역자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회가 1975년 6월 27일 당회실에서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평가내용 □

1. 강의내용과 감사 선정면에서 /가급적 우리교단의 강사를 초빙하고 우리교회의 목회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화된 것을 교육하게 하도록 한다.
2. 시간 배정면에서 /강의시간 중간에 휴식시간이 필요했으며 이번의 120분 강의보다 90분 강의가 보다 효과적이었다.
3. 운영면에서 /평신도 훈련보다 교역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우리교회 교역자들과의 대화와 친교의 시간이 없었음이 아쉬웠다.
4. 교재와 유인물에 대하여 /교안의 내용면에서 성구를 기입하는 등의 좀 더 자세하게 작성되었으면 좋겠다.

### □ 1976년을 향한 개선안 □

1. 우리교회에 농어촌부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개발책을 강구한다.
2. 훈련·교육을 받은 교회와의 유기적인 문서 및 인적 교류를 통해서 상황 파악과 적절한 지도 방법을 수립한다.
3. 특수 전도 및 전도 지도반을 편성하여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출동준비를 갖추어 지원상 필요에 따라 즉시 파송한다.
4. 사명감이 투철한 교역자의 농어촌교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들의 학비와 학업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는 일 등을 강구한다.
5. 시기는 6월 10일에서 20일에 실시하도록 한다.
6. 참가는 초청 교역자 수만큼 구입한다.
7. 교역자 초청 훈련 기간 중에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일과를 오전 중으로 마치게 하고 오후 시간은 그들과의 친교시간을 갖는다.
8. 각종 의식을 슬라이드(slide)로 준비하였다가 그들에게 소개한다.
9. 교육자를 위한 실재적 과목을 보강한다.

### ■ 컬 럼 ■

## 하나님의 뜻은?

이 형 수

젊은 남자가 있었다.

서로를 꿈직이도 좋아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가정의 모든 식구도 한 교회에 나가며 부모님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가정들이었다. 제복입던 학생시절부터 한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자라 왔었다.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쳤다. 둘 다 격장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는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

우연한 기회에 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던 그들은 그 후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들에게서 너무나 꼭 닮은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 후에 모든 일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삶에 개안하는 듯 싶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여자는 영문학자가 꿈이었고, 남자는 유능한 경영자가 소원이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닮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합리적인 사고방식 위에 현실을 무시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서정적인 취미, 열정적인 성격, 시대를 보는 역사관, 또 신앙관 등 그들은 항상 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항상 배워야 할 것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항상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대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다.

정말로 그들은 서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사랑했고 청결하게 고민하며 진실 앞에 고뇌하며 서로를 성장시켜 나갔다. 주위에서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부모들에게 결혼의 의사를 말하게 되었고 모두가 대찬성이었다.

그런데 남자쪽에서는 흔히 잘 가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인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결과는 엄청났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혼을 하려 안된다라는 것이었다. 어쩌게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집안에서 배워 온 것으로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데는 뭐라고 반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해도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방혼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닐 리가 없잖아…」

허탈에 빠져 안타깝게 묻는 친구에게 난 뭐라고 대답을 하긴 해야 하는데…….

# 일만 지도자 육성의 전초역(前哨役)

—제 1 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 훈련

우리교회서 6월 16일 ~ 20일—

불리한 입지조건 때문에 부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수 많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실시된 이번 초청훈련은 처음이었지만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주제로 중남노회 교역자 23명을 비롯하여 충북노회 9명, 대전노회 8명, 경북노회 4명, 전남노회 1명, 전북노회 1명, 강원노회 1명 등 모두 47명(남 41명, 여 6명)의 교역자(목사 12명, 강도사 2명, 전도사 33명)가 모여 4박 5일의 특별 훈련을 받았다.

특히 매일 저녁에 있었던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심령부흥회는 매달렸던 심령들을 시원스럽게 적셔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욕을 잃고 있었던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한다. 이같은 심령부흥회와 아울러 농어촌교회 발전책(최종열), 중남노회 목회방침(김창인), 성경교수원리(정기성), 기독교교육(김진택), 한국교회 동향(김의환), 개혁주의·신복음주의(신성종), 청지기론(정상우), 한국사회와 교회적 사명(손봉호), 교회 행정(김현중) 등의 강의를 있었다.

이번에 특별히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작년까지 평신도와 함께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교역자와 평신도를 분리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의내용을 보다 적합하게 편성할 수 있었고 목회자만을 상대로 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훈련에도 예년의 훈련과 같이 참가자들의 식비는 물론 왕복여비까지 비용일체를 우리교회에서 부담하였는데 모두 249,190원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6월 27일에 있었던 평가회에서는 앞으로 이같은 훈련이 계속하여 실시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었다고 하며 새로이 우리교회에 농어촌부를 신설하여 계속적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몇가지 중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당회에 건의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이 「농어촌교회 지도자 훈련」을 더욱 발전시키고 키워서 교단적으로 일고 있는 일만 교회운동에 발맞추어 일만 지도자 육성의 전초역(前哨役)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전국 일만 양성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교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교회관 건축기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돌아보고 귀국한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선교회관 건축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계획대로 지난 4월에 확보된 자카르타시의 대지에 선교회관 건축을 곧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차적으로 필요한 예산 약 1,500만원(29,000달러)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행위원들이 특별히 헌금을 하였고 선교회 예산을 충당하였으나 아직도 상당액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선교회관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을 전

교회적으로 실시한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선교회관이 완공되면 현재 약화일로에 있는 동남아사태에서 한국의 해외 선교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한국 해외 선교회관이라는 뜻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 권사회 상가 돕기로

권사회는 지난 6월 8일 70명이 모인 6월 월례회에서 「24시간 기도운동」에 이어 「교인 상가돕기운동」을 펴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즉 중남노회 교인 가운데 상가가 발생하면 권사회가 주동이 되어 장례가 끝날 때까지 권사회원들이 봉사한다는 것이다. 상가가 발생하면 권사회 부회장이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즉시 달려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 방위성금 74만여원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부흥성회로 모든 성도들이 25년 전 발생하였던 6·25와 같은 민

족의 비극이 이 땅위에 두번 다시 없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여 주었으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방위성금 모금이 있었는데, 이날 모금된 방위성금은 모두 744,571원이었다. 이 돈은 7월 5일 중앙일보사에 전달되었다.

## 농어촌 전도 요원 훈련

교회 전도부와 성경학원이 주관하는 「전도요원 훈련」이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실시된다고 한다. 농어촌에 파송될 전도요원들을 충분히 훈련시킨 후 파송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훈련은 197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네번째를 맞게 된다.

훈련내용을 보면 전도자의 사명과 자세·농어촌교회의 부흥책·전도의 방법·실무지식·간담회 등이며 지난 해의 평가서를 참고하여 전도지와 장비의 보강은 물론 각

전도대의 조직과 운영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전도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교회로 파송되리라고 한다. 예정된 파송대상 교회는 충청북도-임석장교회, 양곡교회, 충청남도-증장교회·낙원교회·단상교회·문산교회·송산교회, 경상남도-화정교회·경상북도-금곡교회 등 모두 9개 교회이다.

## 현교인총수 4,697명

지난 3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있었던 1975년 춘계대심방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교회에 등록된 교인총수는 6월 27일 현재 4,697명으로, 1,989세대(기간중 심방은 1,523세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면 세례 2,979명(남 985명, 여 1,964명), 유아세례 548명(남 285명, 여 263명), 학습 414명(남 179명, 여 235명), 원입교인 786명(남 339명, 여 447명)이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총 1,788명 여자가 총 2,909명이다.

## 농어촌교회 평신도 훈련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있어 큰 장애요소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 빈곤이다. 이러한 점을 깨닫고 우리교회는 지난 1972년부터 농어촌교회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매년 여름「농어촌교회 평신도 초청 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이 훈련이 지난 7월 10일부터 100여명이 초청되어 우리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 여성지휘, 흥집사 사임

지난 1973년부터 여성성가대 지휘로 수고하던 홍익훈 집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7월 6일 사임하였다. 흥집사는 1966년 중등부성가대에서 봉사하기 시작한 이래 고등부·대학부등의 성가대 지휘도 봉사하여 왔다.

후임으로는 현재 배재중고등학교 교사이며 동산교회 성가대 지휘였던 김광석(1931년생, 연세대학 종교음악과 졸업)선생이 결정되었다.

## 여전도회 성현교회 보조

여전도회는 개척교회인 시대 성현교회의 예배처소를 위하여 150만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 매입을 위하여 여전도회에 특별헌금을 실시한 결과 100만원 이상이 모금되었다고 한다.

## 세계기독교 반공대회

3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세계기독교 반공대회가 올해는 한국에서 열린다. 오는 17일 18일 이틀동안 시대 명동예술 극장에서 모이는데 첫날인 17일 낮 오전 10시 우리교회 김창인 목사가 개회설교를 한다. 또 이날 예배의 성가는 우리교회 제일성가대가 봉사하게 되었다. 이날 700여명의 외국인도 참가한다.

## 원고모집

남전도회사는 전도의 달을 맞아 성도 여러분의 전도에 관한 수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내용: 전도체험담·전도방법·전도표어

마감: 7월 26일

제출: 교회 사무실로

※ 우수작은 시상 및 「충현」에 발표

충현교회 남전도회 지육부

## 수기공모

월간「충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기를 공모합니다.

— 다 음 —

내용/하기 농어촌전도

자격/1975년 하기 농어촌전도대로 파송된 사람

길이/200자 원고지 6매 또는 12매

마감/1975년 8월 24일

제출/「충현」편집실

※우수작은 「충현」9월호에 발표.

월간「충현」위원장 위영환 편집위원회

## 토막 소식

◇당회장 김창인 목사 대만·인도네시아·태국 등 선교지 돌아보고 6월 16일 귀국.

◇7월 13일 맥추절로 지키다.

◇구역권찰회는 명륜구역 권찰에 김인순 집사, 초동구역 권찰에 유정일 집사를 보선 의뢰하여 인준한다.

◇교육위원회 주최 주교 11부 교사 합동야외예배를 지난 6월 6일 경기도 영능에서 드린다. 217명 참가

◇교육연구위원회는 앞으로 Ⅱ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남전도회는 지교회인 낙원교회에 의자 30개(30만원)를 헌납한다.

◇새신자부는 6월 28일 정기성 목사를 강사로 28명이 모여 「교수법」 특강한다.

◇영아부는 8월 한달 목요집회를 쉬기로 하다.

◇유치부는 6월 29일 40여명이 모여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조윤정·조유라 어린이가 1등.

◇유년부는 6월 22일 연구수업을 가졌는데 임성운 선생이 담당하고 교사 45명이 참석.

◇초등부 어린이 수양회가 8월 4일~7일 무궁화촌에서 열린다. 5학년 어린이 100여명이 참가.

◇초등부는 드디어 6월 29일 열망하던 출석수 400명선 돌파.

◇중등부 197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가 97명이 참가하여 6월 29일 열렸다. 회장에 마동훈(2년) 부회장에 장형윤(2년).

◇고등부는 6월 1일 임원 수련회를 열었다. 아울러 100여명이 모여 정기성 목사를 강사로 「통일교」 비판을 듣다.

◇고등부 「목요대항 성가대회」가 6월 15일 있었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지목요회가 우승.

◇대학부 주최 「제4회 중·고·대 웅변대회」가 6월 21일 본당에서 열렸다. 1등에 최종규(고3), 2등에 김경애(고2).

◇대학부 성가대 하기수련회가 7월 31일~8월 1일까지 열렸다. 청평 밤나무골에서 신성종 강도사를 강사로 하여 열린다.

◇청년부는 6월 22일 「신앙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50여명이 모여 발표회를 갖는다.

## 제 1 회

# 충현교회 합동친교대회

○ 어떻게 / 체육대회를 중심한 친교순서  
○ 두 가 / 충현교회 성도전체  
○ 연 제 / 1975년 10월 9일

## 기자 석

○...시작이 반이라고 또 할 해가 시작인가 했더니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주일만 되면 큰 잔치집같이 불비는 도가 점점 더해갈 뿐 장소문제는 속수무책인 채 한해의 반을 보낸 것 같다.

수시로 변동되는 회의장소 때문에 부산스레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웃거리야 한다. 차라리 회의장소 문제 정도는 달한 편이다. 문제는 집회인 것이다. 몇시까지 장소를 비워주지 않으면 밀고 들어가겠다, 안에서 문을 잠그겠다는 등의 극한대립(?)이 장소를 놓고 벌어진다.

교회가 너무 비좁다는 것은 옛그제부터 시작 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한계점에 또 한계점을 갖는다 해도 그 한계선을 넘고 있는 상태이니..... 주여, 특히 어린생명을 위하여 굶어살피주소서. <해>

○...생각할 수록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아지는 것 같다. 완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를 채우면, 다른 구석에서 무언가 구멍이 보이기 마련이다. 본지 사람이 하는 일

로서 100%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인지는 모르나, 새로운 국면에 접할 때마다 원점으로 돌리지는 듯한 허탈감을 느낀다.

각 지방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도 밝은 소망이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 어려움을 때는 기도로 힘을 얻자. <정>

○...수은주가 오름에 따라 작부는 하기 행사계획에 여념이 없다. 이런 관공에 새삼 하기행사의 의의며 목표등을 운운한다는 것이 좀 멧적기는 해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현실이다.

해가 거듭될 수록 예산액도 증가되고 알찬 내용에 다채로와 간다는 것은 열번 환영할 일이지만 모두가 참가할 수 없는 하기행사라 해도 정말 환영해야 할까?

더구나 요즘 행복의 실체가 돈으로 착각된 사회 속에서 참가하고 싶어도 강한 주머니사정 때문에 섭섭하게 돌아서야만 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하기행사는 일부분을 위한 행사는 되어도 결코 항상 외치는 구호처럼 사람에 바탕을 둔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향>

## 편견하고 나서

◇...농어촌교회의 문제.

언제부터 이 말이 사용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농어촌교회문제는 도시교회의 무관심과 독주 속에서 어쩔수없이 피어난 부조리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농어촌교회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회문제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점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번 달에는 「농어촌교회문제」를 특징으로 엮어 보았다.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상호 어떻게 협력하여 나갈 것이냐에 따라 농어촌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의 열쇠가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편집실 공기가 무덥다. 무덥다 못해 답답하다. 이는 단지 계절탓만은 아니다. 새 아기를 분만시키려는 산실(産室)처럼 예정일에 새달호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이다.

그러나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늦었다. 난산이다. 얼마나 의젓하게 생겼는지 생각하기 전에 또 한호가 탄생되었다는 기쁨에 무뎠던 기분이 시원스레 싹 가셔버린다.

◇...「충현」지가 나올 때마다 남들이 더 환호성.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집안식구들은 합구무언이니, 해아릴 건 없는 그 뜻 두렵기도 하지만 어쩔지 인식한 느낌이다. 남들에게는 뉴스거리가 생기면 적적 내어 놓으면서 「충현」기자가 찾아가기 전에는 남의 일 보듯 하니 진정 안타깝소. <표>



<교사 합동 친교회 모습>